

농번기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산촌경제 활성화 거점 도약 박차

무주군, 트랙터 등 48대 농업기계 투입... 농기계 임대·순회 수리 병행

무주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며 농가 지원에 나섰다.

무주군은 트랙터와 자주형 베일러 등 12종 48대의 농업기계를 활용해 하우스 정지 등 농업 현장의 필수 작업을 대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무주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며 농가 지원에 나섰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촌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현장에서 높은 효용을 얻고 있다.

신청은 농업인이 무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경작지가 무주군 내에 있으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338농가를 대상으로 총 116헥타르 규모의 농작업이 진행됐다. 무주군은 농작업 대행과 함께 농업기계 임대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와 퇴비살포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임대해 농업인의 정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기계 임대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본소와 무풍·안성 분소에서 운영된다.

무풍과 안성 분소는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에도 운영되며, 본소는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개 임대사업장에는 농업용 굴삭기와 승용 예취기 등 79종 517대의 농기계가 구비돼 있다.

사전 예약 시 전일 오후 5시에 농기

계를 수령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과 사용법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무주군은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와 교육을 실시해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22회에 걸쳐 28개 마을을 방문해 72농가, 101대의 농기계를 수리하는 등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27일 군의회 의정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손동규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선화, 성진명, 최준영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4월 2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20일간 2025 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금고 결산, △결산과 금고 잔액의

일치 여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한다.

손동규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창욱 의장은 "결산검사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운용 전반을 되짚어 향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들께서는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엄정하게 검사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의 검사대상은 오는 9월 예정된 제3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봉화산 산철쭉군락지 환경 개선 나서

장수군은 전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봉화산 산철쭉군락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봉철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 정비와 상목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5월 1일 전후 산철쭉 만개기 예상됨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탐방로 안전점검 및 정비 △불법 취사 및 흡연 단속 △산림 훼손 행위 계도 △환경정화 활동 강화 △안전요원 배치 등을 중점 추진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봉화산 산철쭉군락지 전반에 대해 생육 장애 요인 제거 작업을 병행해 철쭉 개화 품질 향상과 군락지 보전을 위한 환경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봉화산 산철쭉은 온화한 기후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개화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화려한 꽃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학동마을, '산촌활력 특화사업' 추가지원 대상지 선정

진안군은 정천면 학동 산촌생태마을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산촌활력 특화사업' 추가지원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은 지난해 신규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뤄낸 성과로, 전년도 전국 8개 신규 지원지 중 4곳만이 추가지원을 받는 가운데 전북 자치도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포함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산촌활력 특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선정에 따라 학동마을은 개소당 2,000만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통해 산촌관광 활성화, 산림자원 활용,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학동마을은 2025년 사업을 통해 씨없는 꽃감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과 포장재 제작,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며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씨없는 꽃감'의 상품성과 편의성을 살린 브랜드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위케팅 등 복합 활용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학동마을을 중심으로 산촌 특화 모델을 확산시키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진안군청역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진안홍삼제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진안홍삼으로 역도 선수단 힘 보탠다

전국대회서 잇달 메달 성과... 선수단 격려 위한 진안홍삼제품 전달

진안군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진안군청 역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진안홍삼제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27일 군청 부근수실에서 열렸으며, 선수단의 체력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은 4월 경남 고성에서 열린 '제85회 문국서상전배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 3월 열린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및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

수권대회 등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단위 대회에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안군은 이러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진안홍삼제품을 담은 9개월간 지원할 계획으로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진안홍삼을 연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수단을 통한 홍보로 진안홍삼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보건의료원, 장내 기생충 질환 조사사업 추진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장내기생충 감염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장내기생충 질환 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염 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총 1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며 집중 검체수거 기간을 별도로 운영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신속한 검사를 추진했다.

장내기생충 중 대표적인 간흡충증은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오염된 칼·도마 등 조리도구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이 지속될 경우 복통, 체중감소, 황달은 물론 담관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검사 대상지는 민물고기 생식경원지, 강 유역 인근 거주 주민 등 감염 위험군을 우선 선정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에게는 치료제 무료 지원과 복약지도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감염 예방을 위해 △민물고기 익혀 먹기 △조리도구 끓는 물 소독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교육을 병행해 군민들의 예방 인식 제고에도 힘을 보탠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놀이치료' 운영

무주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해 주 1회 1대1 맞춤형 치료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료 과정에서는 도매놀이와 미술 활동, 역할극 등 아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심리적 안정과 표현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